



# 인문학은 영원한 판도라의 상자인가?

이 상 규 |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인문학의 원근법

인문학의 위기 최근 과학과 기술의 증진이 곧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이러한 시장 경제 논리는 급기야 대학 사회에까지 확산되어 학문의 근원인 철학, 종교, 문학, 예술, 역사 분야와 같은 인문학 분야가 왜소화되었거나 또는 퇴진의 위기로 몰렸으며, 실용성의 잣대를 대학 운영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인문학, 곧 인간학은 고사될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오늘날과 같이 인간이 자기 성찰을 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의 현상과 그리고 인문학을 연구하는 대학과 교육 제도상의 한계 국면을 소위 말하는 인문학 위기의 시대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위기의 책임 인문학의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이 결코 외부 환경 변화라는 요인에 기인된 것만이 아니다. 바로 인문인들의 현실 대응력 상실과 현실 인식의 부족이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전국 6만 3천여 명의 인문학 계열의 학문 후속 세대들이 대학의 시간 강사로 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누가 지도하고 배출한 사람들인가? 2000년 10월 20일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 교수 일동은 '인문학 육성 지원을 촉구하는 우리들의 결의'에서 선언한 "정부와 대학은 시간 강사 등 학문 후속 세대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강의료를 현실화하며, 연구비 지원

기관은 제도적인 강사 지원 전담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또 박사 학위 취득 강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모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고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실 대학의 인문학 학자들이 대책 없이 양산해 왔던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정부 당국에 전가하려는 그들의 부족한 현실 대응력과 한심한 현실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초라한 모습을 보면 연민까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젠 과감하게 다변화된 정보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새로운 혁신과 몸부림을 외면하거나 급기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문학 연구와 인재 양성, 그리고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곧, 전통과 규범으로서의 인문학적 가치가 사회적 통합력이나 도덕적 정체성을 견지하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념적 플랫폼을堂堂히 세워야 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문학이 영원히 판도라 상자와 같은 매직 박스가 이념을 인문학자들 스스로가 헤아려야 할 것이다.

## II. 바깥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텔레마틱 정보 사회 활자 인쇄술의 발달이 인류 지식의 폭발적인 전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으며, 이와 함께 시민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지난 시기의 문명 발달의 전환점이었다면 바로 디지털 혁명은 인간 지식의 시공간 초월은 물론 인간과 기계와 상호 교류라는 사회 제도와 양식의 변화를 가져다준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활자 인쇄술의 발달은 인간 지식의 축적과 공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신(神)의 복음만을 기록으로 남기던 삶의 방식과 종적인 사회 조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인쇄 매체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간의 전달에 따른 시간의 단축과 가상 현실의 전달, 영상 매체의 전달이 가능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들은 역사, 철학 또는 문학, 예술을 통해 인간 삶의 전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러한 예측의 신뢰성은 이미 무력화되었다. 단지 이데올로기 차원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 과학과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팽창 속도의 반작용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체르노빌 대폭발 자연 과학적 성취와 발견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구가했던 지난 20세기 말은, 데카당스의 낭만이나 감미로운 로맨틱 분위기가 뒤섞인 그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었던 19세기 말과는 전혀 다른 매우 위협적이고 어둡고 불안한 시대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1986년 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부근의 프리피야치 시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대폭발은 21세기 인류 생존의 핵심적 키워드를 던져 주었다. 인간 생존에 대한 이해와 각성은 바로 자연 환경에서 생산, 투자, 제어 과정에 관한 생태학적 패러다임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체르노빌 대폭발 이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나는, 나와 환경이다. 내가 만약 환경을 구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요약한 오르테카의 주장은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떠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지 그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설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바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이유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계몽의 판독, 신의 권능에 도전 다른 한편 컴퓨터 사이언스와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데카르트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촘스키에 의한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의 연구와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출발한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神)만이 판독할 수 있었다던 인간 유전자의 그림인 게놈의 판독에 도전한 인류 과학 문명은 우생학에 대한 유희과 인간 생명의 상업화라는 엄청난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미 니체의 절망적 절규인 “신의 죽음”의 국면에 인류가 다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인간과 정보와 기계의 공생 관계 속에서 종교, 예술과 과학의 관계, 합리주의와 인간주의의 관계에 대한 리듬과 공전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보편주의 20세기 말 미·소 냉전 체제가 무너짐과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를 초월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초월적 패러독스의 하나인 신자유주의 물결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문화 보편주의라는 미명의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화라는 괴물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재편의 압박과 함께 영어의 공용화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문화 보편주의가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세계화의 일차적인 전제 조건인 자기

정체성의 확인 절차도 없이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까지 포기한 세계화와 개방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 Ⅲ. 내부의 바람, 인문학의 현실

기성 가치에 대한 반성과 해체의 여과 과정도 없이 다시 지배적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한 세계화의 바람은 결국 자국 문화의 고유성 및 주체성의 상실과 더불어 문화 침투에 의한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역사 및 사회 발전의 근본적 토대인 정신 문화가 붕괴됨으로써 허무주의가 만연하고, 퇴폐주의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곧 개방화의 전제 조건인 자기 정체성의 상실은 허무주의를 낳게 되고, 개성을 상실한 노예 도덕이 지배하는 신식민 사회로 치닫게 될 것이다. 또한 텔레마틱스 시대의 인간 상실은 바로 주체성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창조적 인격, 개방적 인간성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학과 세분화와 학과간의 높은 장벽 우리 나라 대학의 역사는 1세기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짧았던 한국 대학 역사에 비해 보면 그 동안 매우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나라 대학의 학과가 새로운 학문 영역의 개발에 따라 발생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중요 구성원인 교수들 중심으로 문어발식으로, 어쩌면 자신들의 먹이 사슬의 확산을 위해 학과를 개설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국어국문학과에서 파생되어 나온 한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가 전국의 약 50여 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그런데 한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가 대량으로 개설된 시기가 대개 1980년대 이후이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학 과목이 실용 과목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학 교양 교과목의 중심을 차지하던 국어 교과목(국어 과목이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전체 필수 교과목임)이 개설되지 않자 기존 교수의 정원 문제가 제기되고 또 시간 강사나 대학원생들이 시간 강사 자리마저도 잃게 될 위기의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뿌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간에 학문적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아마도 철벽보다 더 높은 장벽으로 가려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인문학에서 원전 해독은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심경호 교수는 『인문 비평』 창간 대담에서 "인문학은 문학을 정확하게 읽는 문맥적 이해와 원리 해석적인 이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라는 논의처럼 학제간의 협동이 필요한 이 시점에 학과간의 협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 학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형식주의와 실사구시(實事求是) 실패 우리나라 인문 학자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으로 '학문의 형식주의'(김영민 : 1996)와 서구 과학주의에 의한 방법론에 대한 무비판적인 '서구 추수주의의 허위 의식'(김영건 : 2000)이다. 몇 장으로 요약해 낼 수 있는 논문을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주석과 같은 전통적 형식과 틀을 고수하는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글쓰기의 허위 의식과 내용적으로 인문학적 엄정성과 독창성을 잃어버린 빈 껍질밖에 없는 글쓰기, 남의 글 베껴 쓰기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매년 수십만 편씩 발표되는 인문학 논문이 과연 실사구시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인문 학자들의 누적된 형식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해체적 관점에서의 비판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 과학 논문은 왜 모국어로 쓰지 않고 영어로만 써야 하는가?(영문으로 쓰여진 논문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문제 역시 인문 학자들의 주체적 역량 부족에서 오는 형식주의의 극단적인 한 단면이

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추수주의가 팽배하고 한글보다는 영어를 우선시하는 국적 없는 기형적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한 것도 역시 인문학과 인문 정신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2003년부터 시작하여 향후 약 8년간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 대학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각 언론에서 예견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 대학에는 투자비를 절감하면서 용이하게 교육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바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원격 화상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어쩌면 향후 한국 대학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미 비즈니스맨을 위한 영어 전문 웹사이트 E캠퍼스(www.englishcampus.com)는 미국 일라배마 주의 사이버 대학인 바링턴 대학과 제휴를 맺었고, MBA 및 IT 관련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수준, 직장 경험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12개월~18개월간 과정을 마치면 학위를 주는 방식으로 이미 국내에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외 대학의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타 주립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프레즈노 캠퍼스의 위탁을 받아 IT 및 경영학 관련 온라인 교육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타 주립대의 경우 2년간의 정규 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4년제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딸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격 화상 교육 강의는 원격 교육 솔루션을 사용해 동영상 화면은 물론, 전자 칠판을 이용한 첨삭 지도, 채팅,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이동 중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교수의 강의 내용을 MP3 음성 파일로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시장의 변화를 단순하게 발빠르게 수용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이 능

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취업과 구직 문제와 학생 이탈 인문학의 위기가 초래된 대외적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구직이 용이한 실용 학문이 우대되는 사회 풍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교육통계연보(1996)』에 의하면 인문계 대졸자 전공 분야의 취업률(48.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문학의 위기를 가속화시킨 요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바로 학생들의 인문계 이탈 현상이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미 인문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감(急減)할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취업에 불리한 인문계를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최소 전공제와 학부제와 같은 교육 제도 개편과 맞물려 인문 계열이더라도 최소한의 학점만 이수하고 다른 계열로 빠져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문 후속 세대의 미취업, 인문학 연구의 공백화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 인문계 교양 교과목의 자유 선택화로 학생들의 선택이 줄어들어 그동안 적체된 약 6만 3천여 명의 학문 후속 세대들은 주 6시간 정도(2강좌)의 시간 강사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라고 한다. 이러한 사태를 비꼬아 “딸을 농촌 시골 총각한테는 시집 보내도 절대로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 다니는 총각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이 대학에 그대로 반영되어 대학원 진학률이 현저하게 줄어 들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의 인문학 학술 연구의 공백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향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인문학 관련 인력 양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적 자본의 동맥 경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 연구의 위축된 분위기는 급기야 인문학 교수들의 연구 분위기 위축과 전공 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 최근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 미국식 교육 방식인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교육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한 수급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이었지만 때로는 국가의 목적에 따라 교육의 구조와 틀은 민주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이 가장 다양한 목표와 교육 이념을 가지고 지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획일주의적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인문학의 위기는 더욱 가중된 것이다.

졸업 정원제, 최소 전공 인정 학점제, 학부제 우리나라만큼 특히 대학 교육 제도와 입시 제도가 자주 변하는 나라는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최근 20~30년 내에 졸업 정원제, 최소 전공 인정 학점제 등의 교육 제도는 대학에서의 학생 운동 저지 차원에서 운용된 경향도 있었다고 하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95년 학사 운영 체제에 관한 학사 자율화 정책이 제시되어, 교양 과목 학점 배점 기준(전체 과목 학점의 30%), 졸업 소요 학점(140학점 이상), 학기당 취득 학점(18학점 이상 21학점 이하) 등의 기준들이 폐지되어 각 대학은 이러한 사항들을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제, 최저 전공 인정 학점제, 복수 전공제 등의 도입으로 교양 과목이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어 컴퓨터와 영어 회화 등이 득세하고 한국(근대)사나 (한국)철학 등은 물론이고 교양 국어도 교양 필수에서 제외되어 그 결과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으며, 그 여파로 인문학의 위축과 기형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공 계열에 집중된 학술 지원 및 장학금 지난 군사 독재 시절부터 과학 입국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라니 하는 명목으로 공학 계열에 집중적인 국가 투자가 이루어진데 비해 인문 계열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

한 형편이다.

인문학 계열의 연구비가 자연 계열에 비해 열악한 바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96년도 총 연구 개발 투자액은 선진국의 평균 1/8 수준인 11조 7,1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부서는 대표적으로 교육부,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처 산하 과학 재단(이 밖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수산부) 등이 있으나 정부 타 부처에서의 인문학 분야에 지원한 연구 과제는 '95년 전체 4,747개 과제 가운데 단 0.8%인 38과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연구비의 실질 금액은 형편없이 적다.

대학 설립 기준 및 정원 자율화 정책 대학 설립 기준이 느슨해진 90년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4년제 대학에서는 대학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인문 계열의 학과를 최우선으로 양산함에 따라 수요보다 인문계 학생 정원이 대거로 늘어났다. 이들의 공급이 누적됨으로써 인문 교육의 부실과 미취업 사태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인문학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이러한 80~90년대에 인가가 난 대학 가운데 경영 상태가 부실한 대학에서조차 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인문학 계열의 석·박사 학위가 남발됨으로써 소위 학문 후속 세대들의 인적 자원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학제간의 연계성 결여 현대 사회가 복잡한 체계와 다양한 분야를 갖추어 나가듯이 학회나 연구소도 전문적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회와 연구소를 연결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이는 학문 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이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이 빠른 자연 과학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집

제도 한국의 인문학은 미시적인 연구로 치달고 있다. 인문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화하는 거시적 안목의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문학의 대중화 인식 결여 인문학의 성격상 지식인과 몇몇 소수 계층을 위한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여 국민 대중들로부터 많은 외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문 학자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 창조의 주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 전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인문학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즉, 고전 문헌의 울타리에서 빠져 나와 현실 사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도외시 말고 지배층이나 지식인 중심의 연구에서부터 대중이나 하층민의 삶을 연구하여 대중을 포용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는 현대 사회의 인간상과 인문학적 정신을 제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 활성화 대학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수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연구소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접 학문간의 협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교수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통합 학문적 또는 학제간 연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대학 부설 연구소가 양적인 면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실적이 없는 연구소, 연구원 없는 연구소, 연구비조차 없는 연구소가 난립해 있다.'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인문학 연구소는 유사 연구소 통합 및 실적 없는 연구소의 폐지에 의해서 대학 내에서도 경시되거나 도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Ⅳ. 인문학 육성을 위한 제안

인문학 기초 연구를 지원하여 인문학 제반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미진한 학술 기초 자료 조사, 판본 연구, 주석 연

구 등 기초 분야 연구 등의 토대 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문학 콘텐츠의 디지털 자료화를 통해 인문학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식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 기반을 재정립해야 하는 동시에 인문계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연구원 제도를 확립하고 박사 전, 박사 후 연구원을 일정 비율 이상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능력 있는 인문학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협동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의 연구소 또는 대학 연구소간의 협동 편제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학문 후속 세대인 시간 강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교양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의 문제는 교양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인문학 후속 세대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연구비 후불 지급 현행 인문학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문계 연구 특성에 맞도록 연구 후 연구물 평가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는 선연구 후지원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급 수혜 기회를 수시로 하고 인문학의 성격에 맞게 다수 중액주의(김남두 : 2000)로 바뀌어야 한다.

인문학 관련 연구비 수혜자의 폭을 학문 후속 세대인 시간 강사까지 확대하고 전체 연구비 수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 수혜 프로그램을 저술, 자료집 간행 등의 연구 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하며, 소규모의 연구 세미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한다.

지속적 안정적 인문학 지원 미국은 지난 1965년, 국립인문학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을 설립하여 '98년까지 56,000건의 지원 사업에 31억 불을 보조한 바가 있다. 이와 유사하

게 우리 나라에서도 '인문학 연구 지원 재단'을 설립하여 인문학에 걸맞는 프로그램과 지원 방식을 개발하고 인문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도에 인문 사회 연구회가 제안한 '인문학 진흥법'은 인문학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영상 문화화 혹은 영상 인문학 연구와 교과목(전공) 문자 문화에만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인문학자들은 사이버 정보화 시대의 영상이라는 시각 문화를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절감하고 영상 문화(에니메이션, 영화, 만화 등)의 매체를 분석 비평하는 작업을 새로운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정책 당국의 획기적인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포함한 학제적 연구 및 교과목(전공)을 새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영상적 읽기와 쓰기, 문자적 사유와 영상적 사유, 글 문화와 영상 문화, 영상적 표현 등과 같은 주제들은 정보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적 자양분이다.

인문학 교육 자료 개발 신뢰할 만하고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회별 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 자료 개발 프로젝트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는 지양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과의 성찰적 대화를 가능하도록 구성되도록 하되, 다른 교육 자료 개발 프로젝트 및 기존의 인터넷 자료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정보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학제간 연구 결과물 공유 체계 확립과 그 파급 장치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21세기 세종 계획(1998

~2007)"은 국어의 기초 언어 자료 베이스 구축을 통한 우리말 정보화, 표준화된 전자 사전 구축을 통한 우리말 체계화, 한민족 언어 정보화를 통한 우리말 세계화, 언어 정보화 관련 규격 및 도구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우리말 표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와 더불어 언어 정보화 계획, 인공 언어 개발 계획 등의 연구 계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문·사회 과학 및 과학 기술 학술 정보 유통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 부처간 정기 세미나 개최, 과학 기술계와 인문·사회계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간 협동 연구 성공 사례 등을 발굴하여 학술 발표와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지원 프로그램 예시 우리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활용할 만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지식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그러하거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인문학적 콘텐츠를 데이터로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화는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사이트 공간에 채울 수 있는 최고급의 콘텐츠는 바로 지역학 인문학 자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 육성 지원을 위한(한국학 하이웨이 구축 프로젝트) "한국학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가안) 사업 등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상규**

#### 이상규

현재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